

목포권

젊음·루미나리에·건어물·풍물·예술·맛의 거리...

목포 원도심 특화거리로

최종용역보고회...“민간 주도 바람직”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도심 특화 거리'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목포시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밝혀졌다.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도심 특화 거리'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목포시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밝혀졌다.

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특화거리 조성방안으로 특화거리 거점 구축, 거리별 개념 및 이미지 구축, 가로 환경 개선,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 4가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도 평일~소랑 연도교 9월 개통 상판 거치공사 완료

완도군 금일읍 평일도~소랑도를 잇는 연도교가 오는 9월 말 개통된다. 완도군은 섬 주민들의 낙후된 해상 교통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 연도교 건설사업에서 상판 강교 거치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접속도로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평일~소랑도간 길이 202.6m, 폭 10m의 교량이 될 이 연도교 건설에는 135억원이 투입되며 군내 3번째 연륙, 연도교가 된다.

170명의 주민이 살며 해조류 및 어패류 양식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연도교가 개통되면 노동력과 물류비 부담 해소는 물론 교통편의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해남산 콩과 톳으로 만든 '해초 청국장'환

세계 발명전시회 'INPEX 2006' 동메달

해남산 콩과 톳으로 만든 건강 기능성 제품이 지난 11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세계 발명전시회 'INPEX 2006 (Invention new product exposition)'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콩 발효식품 '해초 청국장(丸)'이 이번 세계발명 전시회 기능식품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동메달을 수상했다는 것. 이번 발명전시회 참가는 황 사장이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시 퀸즈버러에서 열린 '보성농차 엑스포' 행사에 동행했다

는 정병선 사무관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황 사장은 참가 여비가 없어 애를 먹었고, 제품 도착지연으로 1차 심사에서 누락되기도 했다.

“한국화 배우기 쉽지 않네요”

목포해양경찰서에 그림 동아리가 생겼다. 목포해경의 해화동(海畵同)회에는 경찰관 10명이 참여, 요즘 한국화 그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지난 달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파악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해화동 회원이 된 김효남 경장은 "처음에는 학습을 빙자한 친목단체

목포해경 그림 동아리 '해화동' 직원 10명 업무후 화실서 구슬땀



목포해양경찰 그림동아리 해화동 회원들이 그림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해화동 회장인 한 동순(46) 경사는 이 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선·후배들의 그림 지도를 하고 있다. 한 경사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에서 10회의 수상 경력이 있는 실력파이지만 회원들을 위해 국전 추천작가인 현암 홍중호 화백을 초청, 내실을 다지고 있다.

"첫 모임부터 학습 분위기와 그림에 대한 열정들이 대단했다"고 밝혔다. 회원 대부분이 그림에 대한 열정만큼은 대단해 매년 가을에 실시되는 '공무원 서화전' 출품을 버리고 있다.

여객선 분노 바다 무단 배출

목포해경 7명 입건

청정해역인 목포와 신안 해역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선들이 분노를 바다에 대량으로 쏟아버린 것으로 드러나 처벌이 되고 있다.

목포해경은 "여객선에서 발생한 분노를 운항하면서 바다에 무단 배출(해양오염방지법위반)한 혐의로 목포 N고속, D상사 소속 여객선 기관장 S(50·목포시)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미화사에 대해서는 신안군에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4년 1월부터 지난 4월 중순까지 여객선에서 발생한 분노를 무게는 한번에 5천270kg까지 모두 15만7천여kg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이 선박 이외에도 상당수의 여객선이 이 같은 무단 배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대 여름방학 동안 일반인에 기숙사 개방

목포대학교가 여름방학 동안 일반인들에게 기숙사를 개방한다. 22일 목포대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일반인들도 1일 관리비 9천원(2인 1실), 식비 2천

500원을 내고 기숙사(학생생활관)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겨울 완공된 목포대 기숙사는 남도의 명산 승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아름답고 시설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문의는 전화 061-450-2909~10, 팩스 061-452-9675.

/지역 단신/

유달해수욕장 40년만에 폐쇄

지난 1962년에 개장, 40여년동안 목포시가 관리 운영해 온 유달해수욕장이 해수욕장 지정 기준에 못미치고 해수욕장으로서는 기능이 상실돼 지난 19일 완전 폐쇄됐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목포시 사람의 섬 외달도 해수욕장을 개장한다며 이곳의 이용을 적극 권장했다.

17개 조선업체와 고용지원 협약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은 22일 '현대삼호중 등 대불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17개 조선업체와 원활한 기능인력 수급을 위해 '고용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으로 조선업체는 채용대행서비스, 고용촉진장려금 활용, 재직자 훈련 지원 등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게된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전남 서남권에 8개의 신규 조선소가 건설되면서 조선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조선인력 원활한 수급과 체계적인 관리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북 갈곡들소리 전수관 준공



영암군은 22일 신북면 갈곡리 종오마을에서 유선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철호 영암군수, 김일태 군수 당선자 등 각급 기관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북 갈곡들소리' 전수관 준공식을 가졌다.

신북 갈곡들소리는 지난 2003년 제45회 한국민속 예술제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10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 현재 문화재청에서 심의중에 있다. 군은 갈곡 들소리의 보존을 위해 해 군비 2억5천만 원을 들여 30평 규모의 전수관을 건립한 것.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It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different regions.

A large advertisement for '광주 현대백화점 SUMMER페스티벌 사은대축제!!'. It features a car, a shopping cart, and various promotional offers. Text includes '세계의 음식, 맛과 품질을 향토로 집대성' and '광주 현대백화점 SUMMER페스티벌 사은대축제!!'.